2018 JANUARY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18.01.15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017 년 6 월 23 일(금)부터 24 일(토)까지 2 일간 제 5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2017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한국의 5 개국 19 개 대학/기관에서 50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키르기스스탄 (관련기사 p.2)	투르크메니스탄 (관련기사 p.3)	카자흐스탄 1 (관련기사 pp.4-6)	카자흐스탄 2 (관련기사 pp.7-8)
제 5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2017 중앙아한교협 정기총회	제 8 회 한국어말하기대회, 세계음식대회, 제 2 회 한국학주간	카자흐 국립대-건국대 공동학술대회,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 우슈토베 답사 외	571 돌 한글날기념 한국학 포럼, 제 3 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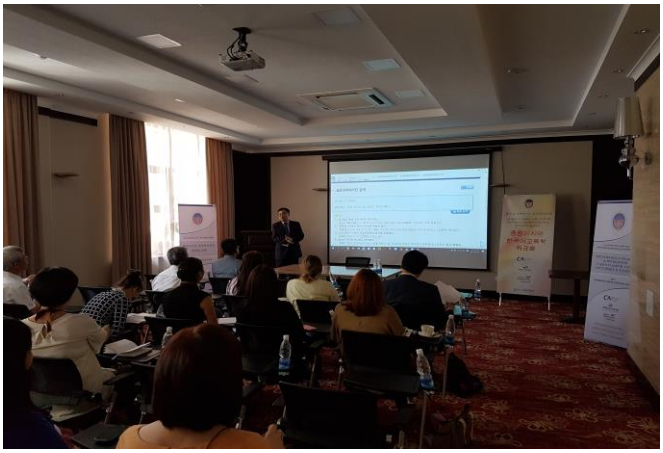
* 이 뉴스레터는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키르기스스탄

제 5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17 년 6 월 23 일(금)부터 24 일(토)까지 이틀에 걸쳐 제 5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및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 정기총회가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인문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비슈케크 인문대 한국학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등 국내외 한국학 기관들의 참여로 기획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한국의 5 개국 19 개 대학 및 기관에서 50 여 명의 한국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3 일(금)에는 아브딜라 무사예프 총장(비슈케크 인문대)의 환영사와 문성기 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 사무소)의 축사로 학술대회가 시작되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참석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데 반하여 교수의 낮은 급여, 교재 및 교육기자재의 부족, 교과과정의 체계성 결여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한국어교육의 열기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태현 교수(비슈케크 인문대)는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신진 교원의 양성, 대학원생의 증가, 한국학연구소의 활성화, 강좌의 다변화, 인력과 재정의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손영훈 교수(한국외대)도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서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장호종 교수(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를 통해 그간 진행되어 온 한국학 대학들의 교류와 협력 현황을 소개하였다.

24 일(토)에는 중앙아시아 한국어교육학 워크숍과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원을 양성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다양화하고 한국어교육을 상향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한국어교육학회에서 조남호 교수(명지대)와 최은지 교수(원광디지털대)가 참석하여 현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학술지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육>과 <CIS 대학(원)생 한국학논문집> 발간, 소식지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인터넷홈페이지(http://canks.asia) 운영, 학술대회 및 경시대회 개최 등 다양한 한국학 사업을 각 대학의 협력 하에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틀에 걸친 학술대회와 총회는 차년도 개최지로 타지키스탄 두샨베로 의견을 모으고 막을 내렸다. 제 1 회 대회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성기 소장(모스크바사무소)은 “앞으로 중앙아시아 한국학을 선도해온 여러 대학과 교수들의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한국학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대회에 참관한 소감을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

제 8 회 한국어말하기대회

2017 년 5 월 13 일(토) 제 8 회 한국어말하기대회가 투르크멘 국립 아자디세계언어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본 대회는 아자디대학교 한국어과가 주관하고 주투르크메니스탄 한국대사관과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한국기업들의 후원 아래 진행되었다. 말하기대회는 <투르크멘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한국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1 학년 학생 5 명과 2 학년부터 5 학년까지의 학생들 중 선발된 5 명이 각각 초급과 중급에 참가하여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한국의 결혼문화, 자연환경, 인사 예절, 드라마와 영화 등 자신이 경험한 한국의 여러 모습에 대해 열심히 발표하여 한국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어말하기대회는 말하기 발표와 더불어 다양한 공연도 선보인다. 13 명의 남녀 학생들로 이루어진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무와 격파 시험, <흥부와 놀부> 연극, 사물놀이, 강강수월래와 투르크멘 전통 춤인 쿠쉬뎁디를 선보였다. 갈채를 받은 태권도 시범단은 총장의 특별 요청으로 체육관에서 열린 스포츠 행사에서 앙코르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말하기 발표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장 수상자들은 LG 상사에서 마련한 스마트폰과 G-pad 를 부상으로 받았다.

세계음식대회

2017 년 12 월 19 일 투르크멘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가 주최하는 제 5 회 세계음식대회가 열렸다. 사파르무라트 차리예프 총장과 오마르 무라도비치 부총장 그리고 몇몇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터키, 아랍, 중국,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 음식들이 진열되었다. 이 대회를 통해 9 월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으며 이미 대회를 치르던 선배들로부터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전수받는 기회도 얻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인 교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한식 재료를 구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불고기, 호박전, 잡채, 삼계탕 등 학생들이 직접 요리하며 준비한다. 다채롭고 색상이 화려한 한국 음식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 2 등을 차지하였다.

제 2 회 한국주간

2017 년 5 월 8 일부터 12 일까지 제 2 회 한국주간 행사가 투르크멘 국립아자디세계언어대 동양어학부 건물에서 열렸다. 한국주간을 위해, 한국어과 학생들은 동양어학부 건물의 1 층 복도를 한국 관련 사진과 포스터, 태극기로 장식하고 네 코너로 나누어 한식, 사물놀이 악기, 한글 그리고 한복을 전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전통놀이인 투호,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식 코너가 가장 인기가 높아 준비한 김밥은 순식간에 동이 났으며 한복 코너에서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싶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였다. 투르크멘 학생들은 특히 투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 참여하였다.

카자흐스탄

카자흐 국립대-건국대 공동학술대회

2017 년 10 월 20 일-21 일 이틀에 걸쳐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건국대 통일인문학과 및 통일인문학연구단과 공동으로, 중국 해양대 한국연구소, 일본 리츠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 조선대 조선문제연구센터 등에서 온 연구자들과 더불어 "제 4 회 통일인문학세계포럼"이 개최되었다. 학술포럼은 "고려인 강제이주 80 년,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고, 학술회의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표자와 토론자 등 모두 33 명이 참가를 했다. 행사를 통해 카자흐스탄 한국학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논의와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카자흐국립대 한국학과에서도 소속 교수 7 명진이 발표자로 참가하는 등 학술포럼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 특강

2017 년 9 월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하에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이 진행되었다. 강의는 총 15 주에 걸쳐서 "CIS 의 한민족"이라는 대주제 하에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부와 학과 내 고려인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민족 구분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었다. 특히 특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강의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계가 있는 전문가, 연구자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깊이 있고 실제적인 정보들을 전달하였다.

우슈토베 답사

2017 년 11 월 18 일 CIS 고려인의 고향 우슈토베에서는 아주 특별한 답사가 진행되었다.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이병조 교수와 학생들이 우슈토베에 있는 고려인 관련 유적지를 대상으로 답사를 수행했다. 답사팀은 알마티주 카라탈군 예스켈디마을(과거 고려인이 조직한 극동 콜호스)에 위치한 제르진스키 고려인학교와 우슈토베 중앙공원에 위치한 정치탄압희생자위령비, 옛 고려극장 건물, 바스투베 언덕 밑에 있는 강제이주기념비 등을 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 이주사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는 시간을 맛볼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한국학주간

2017 년 10 월 30 일부터 11 월 3 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한국학주간” 행사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정기적인 연례행사로 “한국의 문화 역사 퀴즈대회”, “한국영화의 날”, “한국음식문화 체험의 날”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대사와의 만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와의 만남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한 주일 동안의 다채로운 한국학주간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의료봉사활동 통역지원

2017 년 10 월 18 일부터 26 일까지 카자흐 국립대 내 건강검진센터 케레멧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카자흐 국립대는 카자흐스탄 최고의 대학병원 설립을 목표로 한국의 유수한 대학병원들과 의료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본 행사에 한국학과 학생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통역지원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의료분야 통역과 용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선후배 친선화합모임

2017 년 9 월 7 일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에서는 선후배 간의 친선모임이 개최되었다. CIS 지역의 특성상 대학 내에서 선후배 간의 상견례 모임이나 동아리 등의 활동이 한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세부전공별, 수강언어별 그룹수업으로 인해 학과 내 구성원 간에 서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소통이 적어 전체적인 화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선후배 간의 상견례 모임은 재학생 선후배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과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카자흐스탄

포스코 장학금수여식

2017 년 10 월 23 일 카자흐 국립대 본관 15 층에서 포스코 지원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POSCO 는 올해로 11 년째 카자흐 국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전체 수상자 15 명 중 성적이 우수하고 학과 일에 적극적인 7 명의 한국학과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수여식은 카자흐스탄 내 POSCO 대표부 역할을 겸하고 있는 포스코 대우(POSCO DAEWOO) 임채현 지사장, 염 나탈리야 극동학과장, 이병조 교수가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15 명의 장학생들에게 각각 800 달러씩 전달되었다.

카자흐스탄 중기연 장학금전달식

2017 년 11 월 30 일 한식당 “명가”에서 카자흐스탄 한국중소기업연합회의 장학금전달식이 있었다. 학과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적이 우수한 반면에 집안 형편이 다소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카자흐 국립대 5 명,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5 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2016 년에 이어 2 년째 진행된 본 행사는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과 기회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위의 관심과 갈채를 받고 있다.

KF 한국전공대학원생펠로십

2018 년 1 월 10 일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국제교류재단의 대학원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카자흐 국립대 대학원생 5 명(석사 3 명, 박사 2 명)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대학원생 5 명(석사 3 명, 박사 2 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장학사업은 우수한 한국학 인재들을 카자흐스탄의 대학원 과정에 적극 유치하여,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제 3 회 CIS 대학(원)생 학술대회

2017 년 11 월 25 일(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동양학캠퍼스(Tole bi 84)에서 제 3 회 CIS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한국학학술대회 겸 인문학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문후속세대양성과 학술교류활성화를 통한 한국학 및 인문학 기반강화를 위해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부산외대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부산외대 CORE 사업단이 후원하였다.

개회식에서 전승민 총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는 축사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한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학과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2016 년 4 월 제 1 회 대회와 2016 년 11 월 제 2 회 대회에 이어 3 회째를 맞이한 올해 학술대회는 카자흐 세계언어대, 카자흐 국립대, 유라시아 국립대(이상 카자흐스탄), 비슈케크 인문대, 키르기스 국립대(이상 키르기스스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러시아), 부산외대(한국) 등 4 개국 7 개 대학에서 학생 및 관계자 약 80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폐회식에서 이재혁 교수(부산외대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는 여러 대학에서 참가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감사하며,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한 노력과 경험이 학생들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도 내실 있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부산외대의 대학원생들을 인솔하여 참석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부산외대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소는 CIS 지역의 한국학과 인문학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도 11 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파견실습

2017 년 9 월부터 10 월까지 국민대 한국어문학부와 국립국어원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017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 파견 및 실습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12 명의 예비교원들은 알마티 지역의 한글학교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진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게 되어 교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데에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업은 이동은 교수를 연구책임으로 하여 공동연구원인 이수연, 이효정, 정연희(이상 국민대), 조남호(명지대), 김정훈(한양대), 김지혜(부산외대) 교수 등 국내·외 한국어교육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개발한 현지 교원 파견 프로그램이다. 추후에도 교원의 역량 강화 및 한국어 교육계의 내실을 다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571 돌 한글날기념 한국학포럼

2017 년 10 월 9 일(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571 돌 한글날과 한국학센터 개원 5 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학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학 교원 및 학생 120 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쿠툴루코프 한국학과 학과장의 인사말과 이유직 영사(주알마티 총영사관)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동영상 “한글 창제와 발전의 역사”를 감상한 후, “카자흐스탄 한국학의 현황”(김 울리아나)에 대한 발표에서 한국학센터를 개설하여 지난 5 년간 진행해온 한국학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는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 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해외중핵대학사업에 선정되어 학술지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학술대회와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학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핵대학 육성사업은 해외 대학 중 한국학의 역사가 깊고 기반이 탄탄한 대학을 지원하여 한국학의 핵심기관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아시아에서는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최초로 선정되었다.

발표가 끝난 후 김형환 법인장(신한은행 카자흐스탄법인)이 신한은행 장학증서(7 명)를 전달하였고, 임병률 회장(카자흐스탄 중소기업연합회)이 본교에 대한 후원 계획을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학업 의욕을 고취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대학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학원 장학생(박사 2 명, 석사 3 명),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장학생(박사 2 명, 석사 2 명), 한국학센터 장학생(4 명), R/A 장학생(5 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게 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우수자 시상을 끝으로 막을 내린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학센터가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를 마친 후 장소를 옮겨 한국-중앙아시아 오픈포럼 2017~2018 학년도 제 1 차 발표회를 가졌다. 장호종 교수(한국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는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향후 사업 계획을 소개하였다.